

구약논단

제 16권 2호(통권 36집) 2010년 6월 30일

안 근조(호서대) 욥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	71
본 논문은 욥기 31장에 나타난 욥의 결백 맹세문을 통하여 구약성서의 윤리를 새롭게 조명한다. 문학적, 정경비평적, 신학적 탐구를 통하여 욥기 31장은 본래의 율법정신과 잇닿아 있으면서 새로운 도덕원리로 거듭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면성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그리고 경건성의 원리이다.	
Ahn, Keun-Jo Old Testament Ethics in Job 31	71

욥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¹⁾

안 근조 | 호서대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욥의 마지막 독백 가운데서 31장에 드러난 결백 맹세문의 내용들에서 포착되는 구약성서 윤리의 문제들을 다루려 한다. 특히 각각의 맹세문의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약성서 윤리와는 사뭇 다른 사회 정의와 윤리적 동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물론,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며(욥 31: 16-20), 공정한 재판을 하며(욥 31: 21-23),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욥 31: 26-28) 등은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에서 강조하는 윤리들이다. 그러나 젊은 처녀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는 것(31:1-4)이나, 부를 자랑하지 않는 것(욥 31: 24-25), 또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는 것(욥 31: 29-30), 심지어는 개인의 은밀한 악행에 대한 언급(욥 31: 33-34) 등은 구약성서뿐만 아니라 지혜 전승의 배경에서도 생소한 덕목이요, 오히려 신약성서 시대에 친근한 정서와 내용을 띤다.

1) 본 연구는 호서대학교 기초학문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과제번호: 2009-0176).

욥 29 - 31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의 마지막 독백 부분이다. 그 중 29장은 욥의 과거 시절에 대한 추억이며, 30장은 현실 고통에 대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 31장은 욥의 발언의 절정으로서,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욥의 맹세문이 기록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 욥기는 의인의 고통을 다루는 지혜문학서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신정론(神正論)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경험하는 갈등과 항변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급기야 그는 욥 31장에 이르러 결백 맹세문이라는 문학적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 공방의 형식을 통한 그의 최후 진술은 이제 법정 공방의 또 다른 대상자인 하나님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²⁾

욥기의 저술 시기나 저자에 대한 역사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구약성서의 정의나 윤리의 주제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본문에 대한 성서 신학적인 분석과 재조명이 요청된다. 우선 본문 31장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선행될 것이다. 이후 본문 해석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학 형식상의 문제와 본문의 배열에 대한 문제들이 신학적 문제와 더불어 논의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구체적인 윤리적 차원들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욥기 31장을 통해 본 구약성서의 윤리적 특성이 제시될 것이다.

2. 욥 31장의 전체 구조와 내용

욥 31장은 **□X**(임/만약에)으로 시작되고 있는 일련의 결백 맹세문(oath of innocence)³⁾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회에 걸쳐서 **□X**으로 시작되는 맹세문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16가지의 맹세문이 각각 다른 윤리적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

2) 특별히, 31:35-37장은 욥은 법정공방을 위한 소송장을 전능자, 곧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동시에, 욥에 대한 죄목이 담긴 원고 축의 소송장을 요구하고 있다: J. Blenkinsopp,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66쪽.

3) 맹세문의 형식: 1. 완전한 형태: "만약 내가 X를 했다면, Y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 (욥 31: 7-10, 21-22, 38-40); 2. 축소된 형태: "만약 내가 X를 했다면,..." 결과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욥 31: 5, 13, 16, 19, 24, 25, 26, 29, 31, 33): C. A. Newsom,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551-552쪽. 맹세문의 등장 자체는 현재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법정배경 가운데 주장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왼쪽 칼럼은 내용상 구분이며, 오른쪽 칼럼은 **□X**으로 이끌러지는 절들을 단순히 열거하였다:

	내용 중심	결백 맹세문 중심
1	1-4 음욕 거절	1st 만일 내가 허위와, 내 발이 (5)
2	5-8 거짓과 탐욕 척결	2nd 만일 내 걸음이, 내 마음이 (7)
3	9-12 간음문제 정결	3rd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9)
4	13-15 종들을 선대	4th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13)
5	16-20 과부와 고아를 구제	5th 만일 가난한 이에게 (16); 6th (19); 7th (20)
6	21-23 공정한 재판	8th 만일 나를 도와 주는 자가 (21)
7	24-25 물질로부터 자유	9th 만일 내가 내 소망을 (24)
8	26-28 천체승배 배척	10th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25)
9	29-30 원수보복 거부	11th 만일 해가 빛남과 (26)
10	31-32 나그네 환대	12th 만일 내가 언제 나를 (29)
11	33-34 범죄사실 노출	13th 만일 내 장막 사람들은 (31)
12	35a 자신의 정식 소송장 제출 35b-37 정식법정소송 기대	14th 만일 내가 언제 (33) 15th 만일 내 발이 (38)
13	38-40 불의한 토지사용 근절	16th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39)

* 35b-37 정식 법정 소송 기대⁴⁾

내용 중심으로 볼 때 본문의 윤리적 조항은 총 13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중 12번째 법정 소송 절차와 관계된 부분(35-37절)을 빼다면, 실제 다루고 있는 항목은 12가지가 된다. 포오러(G. Fohrer)의 경우도 12세목을 지적 하는데, 위의 구조 분석과는 달리 욕 31장 5-8절의 거짓과 탐욕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분리하고, 대신에 욕 31장 16-23절까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⁵⁾ 반면에 클라인즈는 거짓, 간음, 종들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문제, 원수의 불행, 땅에 대한 착취 등 7가지 부분으로 정리하고 있으며,⁶⁾ 뉴섬의 경우는 성과 도덕성, 정의와 의무, 적절한 마음가짐, 사회적 관계, 토지 윤리 등 5부분으로

4) 35a는 자신의 정식 고소장 완성, 35b-37은 하나님의 고소장을 요구!

5)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J. L. Crenshaw/J. T. Willis(eds.), *Essays in the Old Testament Ethic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4), 7쪽.

6) D. J. A. Clines,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1012쪽.

요약한다.⁷⁾ 레베크는 욥 31장 5-8절을 기만(욥 31: 5-6)과 욕심(욥 31: 7-8)의 두 부분으로 세분하여 총 14항목으로 다룬다.⁸⁾

주석가들에 따라 다루어지는 항목들의 종류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본문 욥 31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인간사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욕을 거절하는 내면적 측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질관과 종교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들과 가난한 자들, 나그네, 심지어 원수값음에 대한 문제와 토지 경작에 이르기까지 욥의 대인적, 대사회적, 대신적 그리고 대자연적 관계를 총망라하고 있다.

결백 맹세문이 본문의 주된 문학적 장르로 나타난다는 것은 욥이 자신의 무고 선언을 위한 가장 강한 호소 수단으로서 맹세문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 소송에 있어서 피고자가 결백 맹세문을 발효했다면, 아무리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라 할지라도 고발이 취하되고, 맹세문에 따라 피고자의 형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⁹⁾ 만약 죄가 있다면, 맹세문대로 큰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일 죄가 없다면, 맹세문 선포 이후에도 욥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하나님에게 넘겨졌다. 만약 하나님 쪽에서 응답이 없다면, 욥의 무죄가 증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죄 없는 욥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을 법정 소송의 상대방인 하나님이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결백 맹세문은 하나님의 출현을 요구하는 욥의 최후의 수단이 었다.

그런데 본문을 분석하면서, 문학 형식과 맹세문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 번째, 12조항에 걸친 윤리적 주제들 가운데 유독 처음 항목인 1-4절은 אָמַן(임/만약에)으로 이끌리는 맹세문이 아니다. 단순한 언약문으로 되어 있다: בְּרֵית כְּרֵתִי(베리트 카라티/언약하다). 왜 홀로 일관된 문학 형식에 위배되어 있을까? 두 번째, 마지막 항목인 38-40a절의 착취적 토지 경작에 대한 맹세문은 35-37절의 법정 소송 요청문으로 인해 앞선 다른 맹세문들과 동떨어져 있다. 현재 본문 위치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상의 두 가지 문학 형식과 정경적 위

7) C. A. Newsom, *The Book of Job*, 552쪽.

8) 장 레베크, 「욥기」 김건태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8), 91쪽.

9) J. Blenkinsopp, *Wisdom and Law*, 66쪽.

10) 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85), 431쪽.

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 또한 지적된다. 하필 자신의 무고함 주장의 첫 머리가 젊은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체 맹세문의 서론 격인 호색에 대한 문제는 욱이 말하는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음에서 이 문제들과 대결하려 한다.

3. 욱 31장의 장르적, 정경적, 신학적 문제

1) 장르의 불일치

욕기의 결백 맹세문은 독특하다. 가장 가까운 장르는 이집트 문서인 '사자의 서'(125장)와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난다.¹¹⁾ 구약성서에서는 출 22장 7-11절에서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특히, 출 22: 8b와 11a/히10a¹²⁾) 볼 수 있다.¹³⁾ 이런 맹세문은 증인이 없을 때 직접 신 앞에서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욱의 맹세문이 다른 유사문학의 형식들과 다른 점은 대개 형벌과 관계된 결과문이 생략되는 데 반해, 실제적 형벌의 내용이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욱 31: 8, 10, 22, 40).¹⁴⁾ 그만큼 욱의 무고함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것은 16차례에 걸친 맹세문의 도입부는 맹세문이 아닌 언약문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팻과 같은 학자는 욱 31장 1-4절의 언약문을 유사한 내용을 언급하는 욱 31장 9절 앞으로 재배치한다.¹⁵⁾ 포오리의 경우는 욱 31장 1-4절이 마지막 맹세문인 욱 31장 38-40a절과 더불어 후대의 첨가로 보고, 본래 오리지널한 본문에서 제외시킨다.¹⁶⁾

장르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언약문을 서두에 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지금 욱이 시도하는 것은 기존의 율법적 규정들을 어김없이 잘 수행했는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righteous man)로서 살아왔음을 증언하는 것이다.¹⁷⁾ 더욱 분명하게 언급한다면, 욱은 지금 외적인

11) J. L. Crenshaw, *Prophets, Sages, and Poets*,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6), 42쪽.
12) חֲבֻטָּה אֶל־יְהוָה (쉐부앗 야웨/하나님 앞에서 맹세)
13) G. Fohrer, *Das Buch Hiob*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6),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3), 10쪽.
14) J. L. Crenshaw, *Prophets, Sages, and Poets*, 43쪽.
15) D. J. A. Clines, *Job 21-37*, 1014쪽.
16)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8쪽.
17) Th. W. Ogletree, *The Use of the Bible in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Fortress, 1983), 77쪽.

형식에 치우친 삶이 아닌 내면적 순전함의 삶을 지켜왔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과의 언약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눈으로 말미암은 내적 충동의 절제에 대한 언약을 통해 내면적 범죄조차 삼갔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물며 외적 행위에서 범죄 함이 있을 수 있느냐를 주장하는 고도의 수사학이 있기 때문이다.¹⁸⁾

물론, 이후 드러나는 맹세문들은 외적 행사와 내적 성향,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뚜렷한 잘못과 감춰진 과오 등의 모든 윤리적 범위들을 총괄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 모든 맹세문들 앞에 전혀 다른 문학 형식으로서의 서론이 자신과의 결백 언약문으로서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후 등장하는 모든 맹세문들의 진정성을 담보해 주고 있다. 더군다나 그 언약의 근거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선 의인의 고백임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욥 31: 2)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 31: 4)

현재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무고함을 선고받기 원한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요청되는 바, 욥은 순전함을 넘어서 이제 거룩함의 상태에 서 있음을 주장한다.

2) 정경적 위치

마지막 맹세문인 욥 31장 38-40a절의 위치는 학자들 사이에 그 위치의 적절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²¹⁾ 욥 31장 35-37절의 욥의 정식 고소장 제출로 인해 앞선 다른 맹세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법정 소송장 제출이 맹세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맹세문이 첨가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포프는 불의한 토지 경작에 대한 본문의 위치를 욥 31장 8절과 9절 사이로 옮기고 있다.²²⁾ 땅의 소작물에 관계된 유사

18) D. J. A. Clines, *Job 21-37*, 1015쪽.

19) J. L. Crenshaw,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5쪽.

20) 본 글에서 인용되는 성서구절들은 한글성경 개역개정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다.

21) 이 군호, 「욥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90쪽.

한 주제로 묶기 위해서다. 하틀리의 경우, 욥 31장 38-40a절을 욥 31장 35-37절 앞으로 옮긴다.²³⁾ 그래야 자연스레 욥의 최종 변론의 결론이 소송장 제출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포오러는 문제의 본문 단락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본래 구약성서에는 십계명(출 20: 1-17)을 비롯한 소위 제의 십계명(출 34: 10-26), 단수적 십계명(singular Decalogue; 레 19: 13-18), 그리고 에스겔의 정의의 율례(겔 18: 5-9) 등 열 가지로 구성된 일단의 규정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에 착안하여, 욥기 맹세문 또한 본래는 열 개의 윤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 욥 31장 1-4절의 언약문은 서두에, 욥 31장 38-40a절의 맹세문은 결론 부분에 첨가되었다는 것이다.²⁴⁾

포오러의 명석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석은 현재의 본문의 배열 그대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읽혀진 사정을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열 개의 맹세문을 확장시킨 것이 지혜 전승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까지는 밝히고 있지만, 왜 욥 31장 38-40a절의 땅 착취에 대한 죄과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결론 구절로서 필요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문학비평적 입장에서 하벨이나 클리포드는 본문의 결백 맹세문이 계약에 관계된 발언으로 시작하고 계약에 관계된 발언으로 끝나는 교차 대칭적(chiastic) 구조를 들어 38-40a절의 결론 구절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²⁵⁾ 즉 결론부의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계약적 맹세가 서론 부분의 눈과의 언약 개념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전체적인 계약적 틀 내에서 본문이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잔젠은 계약적 개념을 더욱 심화시켜 땅 착취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 창 2 - 3장에 기록된 땅의 저주와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한다.²⁶⁾ 계약적 불성실의 증거가 바로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 부분으로서의 욥 31장 38-40a절은 앞서 나왔던 모든 맹세문들에 적용되어 욥의 신실함을 봉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2) M. H. Pope, *Jo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230쪽.

23) J. Hartle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8), 422쪽.

24)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8-9쪽.

25) N. C. Habel, *The Book of Job*, 427-428쪽; R. C.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86쪽.

26) J. G. Janzen,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215-216쪽.

이러한 본문 그대로 읽어내려는 입장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욥 31장 38-40a절의 마지막 구절의 등장인물 “욥의 의도적 발언”으로 보는 하 경택의 입장은 타당하다.²⁷⁾ 본 구절은 욥의 결백 맹세문과 그에 따른 정식 법정 소송장을 제출한 뒤에 최종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죄악상이 밝혀진다면(욥 31: 38-39) 무질서²⁸⁾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이다(욥 31: 40).²⁹⁾ 곧 자신의 범죄 함이 증명된다면(하나님과의 법정 소송을 통해), 콩 심은 데 팔이 나는 무질서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본인의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고통의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최후 변론으로 볼 수 있다.

3) 눈과의 언약의 신학적 의미

욥이 자신의 무죄를 증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순전함을 고백하는 항목이 젊은 여인에 대한 음욕 절제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낸다. 왜냐하면 욥이 밝히고자 하는 자신의 정결함 덕목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한 사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한 포프는 본문의 처녀(מַלְאָכָה; 베틀라(*btlh*))를 야나트 여신을 가리키는 우가랏어 어근인 *btlh*와 연관되므로, 그 음녀는 바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하늘의 여왕”(렘 44: 16-19)인 이쉬타르 여신을 의미한다고 제안하였다.³⁰⁾ 그의 제안은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도 보듯이 인간과의 관계 덕목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덕목이 더 중시되기에, 우상 숭배가 아닌 순전한 하나님 예배를 욥의 윤리 덕목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프의 어원학적 비교 문학 분석이 간과한 점은 본문이 서 있는 자리가 지혜 전승이라는 점이다. 오경이나 예언서 전승에서 야웨 하나님 예배는 가장 절실하다. 그러나 지혜 전승에서는 삶의 문제가 앞서 있다. 왜냐하

27) 목회와신학 편집부,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286쪽.
 28) 욥이 고통이 닥친 후 처음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던 3장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내 몸에 미쳤구나”(욥 3: 25) 라고 외칠 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곧 불안(אִי־שָׁלוֹם; 로게즈/혼돈)이 있음을 기억하라! 참조 C. A. Newsom, *The Book of Job* 370쪽. 지금 결백 맹세문을 통하여 만약 자신의 범죄함이 증명되면 가장 무서워 했던 이 혼돈의 상황을 마침내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선언이다.
 29)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M. H. Pope, *Job*, 228-229쪽.

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의로운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³¹⁾ 욥의 결백 맹세문의 시작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문제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지혜 문학에서 “눈”은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악한 충동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교만과 성적 욕구의 자리이기도 하다.³²⁾ 그러기에 욥의 윤리적 덕목 진술에 앞서서 눈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모든 부도덕과 범죄로 통하는 길들이 그 근원에서부터 봉쇄되어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눈이 젊은 여인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진술은 또 다른 지혜서인 시락서 9장 5절과 완전히 일치한다.³³⁾

이렇듯 지혜 전승의 맥락에서 처녀를 음욕을 가지고 주시하지 않았다는 선포는 앞서 “장르의 불일치”를 논할 때에도 언급되었지만, 내면적 동기의 순수성을 천명하는 것이다. 욥은 결백 맹세문을 통해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의 경건성에 이르기까지 제 차원에서 온전성(ṣḥ; 톰)을 드러내려 했으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성적 순전함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본성이 영성(spirituality)과 육체성(sexuality)이기에,³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하여 두 영역에서의 완전함이 필수적인 것이다. 오경이나 예언서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우선으로 부각되는 것은 영성의 측면이다. 그렇다면, “성적 대상을 바라보는 눈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욥 31장 1절의 눈과의 계약 관계는 인간 경험을 중시하는 지혜서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육체성의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욥은 자신의 결백 맹세문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절실하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존의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들을 내면화하고 신앙화 하여 개인적 지혜와 통전성의 개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³⁵⁾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관심하는 구약성서 윤리의 보고(寶庫)이다.

31) B. C. Birch, *Let Justice Roll Down: The Old Testament Ethics, and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333쪽.

32)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17쪽.

33) “Do not look intently at a virgin, or you may stumble and incur penalties for her.”

34) J. H. Ellens, *Understanding Religious Experiences: What the Bible says about Spirituality*,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2008), 25쪽.

35) B. C. Birch, *Let Justice Roll Down*, 335쪽.

4. 구약성서 윤리의 종합과 갱신

클레멘츠는 구약성서의 윤리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라 규정한다.³⁶⁾ 왜냐하면 구약성서의 사형 제도(예. 창 9:6)나 인과응보 사상(예. 출 21: 23-25)등의 율법 조항들 자체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연유된 것이지, 일정한 보편적 원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약성서는 윤리적 행위의 우선 순위에 관심하며, 그에 따른 보편적 도덕 원리로 나아가고 있음 또한 주목한다.³⁷⁾

일반적인 구약성서 윤리의 성격과는 달리, 욥 31장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항목들은 상황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이요, 임시적이기보다는 영구적 특징을 띤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혜문학 자체가 인간 일반의 경험과 보편적 창조 질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보다 중요한 이유는 욥기 문학 자체가 갖는 독특성이다. 기존의 구약성서의 모든 전승들의 총합일 뿐만 아니라,³⁸⁾ 인간 고통의 보편적 경험과 목상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윤리적 요소들이 본문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오경의 십계명과 그 내용상 대동소이한 윤리 규정들이 욥 31장에서 확인된다: 우상 숭배(욥 31: 27), 간음(욥 31: 9), 도둑질(욥 31: 5-7), 거짓 증거(욥 31: 21), 탐심(욥 31: 24-25). 안식일 규정에 관한 확대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안식일 준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도 안식 하셨듯이 가족들과 종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제 7일에 쉬어 하나님의 질서를 쫓으며 거룩케 하라는 것이다(출 20: 10-12). 욥 31장에 의하면 남종과 여종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며(욥 31: 13-14), 고아와 과부를 가족 처럼 도우며(욥 31: 16-18), 토지 또한 착취하지 않았음(욥 31: 38)을 밝힌다. 그리고 모든 행사들의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데 두고 있다(욥 31: 15). 십계명의 10가지 항목을 하나님과의 관계(제 1-4계명)와 이웃과의 관계(제 5-10계명)로 나누어볼 때, 욥 31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6) R. E. Clements,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dern Churchman* 26-3 (1984), 18쪽.

37) R. E. Clements,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17쪽.

38) 안 근조,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0집 (2006년 4월), 147, 153쪽.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구약성서의 윤리가 그 본래의 율법정신의³⁹⁾ 재발견을 통해 심화되고 갱신되는 모습이 다음의 구절들에서 발견된다. 첫째, 본문 1절의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율법 준수의 근거인 내면적 동기의 순전함의 문제를 짚고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 처녀에게 “주목”한다는 표현은 **יָרַב** 동사의 *hithpolel* 형으로서, 문자적 의미는 처녀를 “더듬듯이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시집 안간 젊은 여인, 즉 **קַלְיָוֶיטָה**(베틀라)를 유심히 음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표현은 본문 31장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신약성서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마다 간음하였다”고 선포하는 산상수훈의 지적과 상통하고 있다(마 5: 28).

둘째, 욕 31장 7절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른다”는 표현은 특이하다. 기본적으로 창 3장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눈으로부터이다(창 3: 6⁴⁰⁾). 그리고 마음은 인간의 왜곡된 의지가 자리하는 곳이다(민 15: 39b⁴¹⁾).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서 마음과 눈이 등장할 때에는 양자간의 특별한 관계성을 일컫기보다는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⁴²⁾ 그러나 본문에서는 눈과 마음 사이에 특별한 논리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죄악 된 마음의 시작이 보는 눈으로부터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구약성서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기저에 깔려 있는 죄악 된 본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다. 욕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갈 때에 죄악을 범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의인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마음을 품는 자 임을 시사하고 있다.⁴³⁾

셋째, 욕 31장 15절에 남종과 여종에 대하여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평등 사상이 드러나 있다. 사실상 이와

39) 본래 율법은 “철저한 아웨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이라는 정신이 전제되어 있었다. 김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이해,” 『구약논단』 24집 (2007년 6월), 36쪽.

40)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41)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2) 1) 시 19: 8 “여호와와의 계명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한다”; 사 6: 10 ->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기관; 2) 왕상 9: 3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 관심, 소통; 3) 시 38: 10 나의 심장은 뛰며 눈은 쇠약하도다 -> 육체의 질병, 어려움; 4) 시 101: 5; 잠 21: 4; 사 10: 12 교만한 눈과 마음

43) 고후 5: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유사한 표현이 같은 지혜문학인 잠언서의 여러 본문에서 발견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잠 14: 31)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잠 17: 5)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니라(잠 22: 2)

이는 지혜문학의 지배적 사상인 창조적 질서 내에서 창조주와 피조물과 관계를 강조하는 구절들이다. 그러나 욥 31장에서 인간의 권리와 평등 사상에 대한 견해는 더욱 진전되어 있다. 왜냐하면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 15절의 인칭 변화에 주목해 보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뱃속에서 창조하신 이가 한 분 아니신가?” 바로 욥에게 있어서 새로운 윤리적 갱신의 계기는 이웃과의 연결된 관계성, 곧 연대감이다.⁴⁴⁾ 이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근본 정신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인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몬 16).

넷째, 욥 31장 29-30절의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 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또한 고려할 만한 항목이다. 실제로 구약성서는 원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성이 전제되어 있다(레 19: 18)⁴⁵⁾ 또한 지혜 전승에서도 원수의 불행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잠 24: 17).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서 욥은 단순히 의무적 율법 규정을 쫓아서 원수들에 대한 태도를 취했다기보다는, 결백 맹세문의 성격상 그의 마음에서조차도 원수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조차도 그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보복을 간구하고 있으며(렘 11: 20, 12: 3), 이와

44) 다음에 나오는 18절에서도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가족과 같은 연대감을 피력함을 주목하라!
45) D. J. A. Clines, *Job 21-37*, 1027쪽.

같은 논조는 저주 시편인 시 69편 22-28절과 맥을 같이 한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기존의 윤리관을 한 단계 넘어서는 원수 사랑의 덕목을 보여 주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이 닮아 있다(마 5: 44).

다섯째, 욥 31장 33-34절의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의 맹세문이다. 욥은 행위의 잘못이 있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덕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 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경우 범 죄 당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희생 제사와 보상을 통하여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율법서의 규정(예. 레 4: 1 - 6: 7)을 욥은 온전히 좇았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⁴⁷⁾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본문은 죄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구약성서에서 개인의 은밀한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분명한 어조로 표현하는 방식은 생소하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을 직역하면, “내가 만약 아담처럼(אָדָם; 크아담)”이다.⁴⁸⁾ 창 3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과를 숨기려는 아담과는 달리, 욥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지 아니하였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랄하게 비판 받은 바리새인의 위선적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욥의 윤리이다.

여섯째, 욥 31장 38절의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에 이르면 마치 욥이 창조 그 자체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본래 아벨의 죽음 이후에 부정의에 대한 땅의 직접적인 호소와 연관된 구절이다.⁴⁹⁾ 그러나 본문에서는 피조 된 세계 내의 삶의 터전으로서 땅의 보존과 선용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땅 보존에 대한 관심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상이었으며, 주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레 25장)과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신 15장)에서 강조되어 있다. 욥은 토지에 대한 착취와 소유주에 대한 강탈이 이루어질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그 땅 자체가 심판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밀 대신

46) N. C. Habel, *The Book of Job*, 437쪽.

47) C. A. Newsom, *The Book of Job*, 554쪽.

48) N. C. Habel, *The Book of Job*, 438쪽.

49) M. H. Pope, *Job*, 230쪽.

에 가지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 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욥 31: 40a). 잔잔이 바르게 지적한 바, 이는 창 2 - 3장의 인간의 죄악과 땅의 저주에 관련된 세계 기원적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이다.⁵⁰⁾ 그렇다면 지금 욥은 자신의 윤리적 차원과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적 차원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맹세문을 통해 그의 윤리적 관점은 창조 신학의 터전에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근원적이고도 보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욥 31장의 윤리는 구약성서의 전통적 도덕성을 반영하면서도, 내면성과 관계성이 특별히 부각된 가운데 보다 진전된 윤리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비치(B. C. Birch)는 욥의 윤리가 단순한 율법의 성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율법의 규정들을 넘어서고 있음을 바르게 간파하고 있다.⁵¹⁾ 더 나아가 포오러는 욥의 결백 맹세문이 윤리 세계의 정상에 독보적으로 올라서 있음을 강조한다.⁵²⁾ 우리는 이상의 욥 31장의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구약성서의 윤리적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욥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 윤리의 특성

1) 내면성

포오러에 의하면 욥 31장의 윤리적 관점은 기존의 율법 전승뿐만 아니라, 욥기 자체가 자리하는 지혜 전승을 초월하고 있다고 본다.⁵³⁾ 욥은 율법에 명시된 개별적 법규들의 외적 준수 여부에 그다지 관계하지 않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적절성에 관계하는 지혜자의 처세술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욥이 결백 맹세문에서 근본적으로 일련의 규범적 지시들과 현자적 가르침들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욥 31장 1절의 눈과의 언약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외적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에 심중의 동기와 삶의 기본태도에서 순전하였음을 주장한다. 욥 31장 7절에 “마음이 눈을 따르지” 않

50) J. G. Janzen, *Job*, 215-216쪽.

51) B. C. Birch, *Let Justice Roll Down*, 332쪽.

52)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19쪽.

53)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13쪽.

54) B. C. Birch, *Let Justice Roll Down*, 335쪽.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요동하기보다 중심 잡힌 신중한 삶을 살았음을 증거 한다. 반면에 눈에 보인 가난한 자들의 곤경을 그의 마음은 외면하지 않고 진실하게 도와주었다(욥 31: 19).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에 의해 유혹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욥 31: 26-27),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심중에서라도 기뻐하지 않았던(욥 31: 29) 완벽한 순전함을 고백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일말의 죄악이라도 품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욥 31: 33-34) 자가 욥이다.

욥의 윤리는 순전성(☐: 톱/integrity)으로 향해져 있었으며, 그의 내면적 동기의 순수함이야말로 욥을 통전적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였던 이유이다.⁵⁵⁾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적 태도의 철저성이 바로 욥 31장을 산상수훈과 비견될 만한 최고의 윤리적 가르침으로 평가받게 한다.⁵⁶⁾

2) 관계성

크렌쇼는 욥 윤리의 바탕이 추상적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대감으로 모든 인류가 한 가족처럼 묶여 있기에,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돌보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원수까지도 선의로 대한다는 것이다.⁵⁷⁾ 특히 처녀를 호색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만족의 도구로 다른 인격적 존재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간음을 삼가는 이유 또한 결혼관계와 가족의 신성성에 대한 존중이다.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이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욥 31: 5, 7) 또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일이며 결국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욥은 심지어 정직하게 벌어 소유한 빵이라도 혼자 “내 떡덩이”를 먹는 일을 조심한다(욥 31: 17). “과부들의 눈이 실망하게”(욥 31: 16) 하지 않았다. 관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의 윤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단순히 즐기는 것(욥 31: 24-25) 역시 무죄하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질을 통한 안심은 오만을 낳기 때문이다.⁵⁸⁾ 그 오만이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은 자기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욥 윤리의 관계성의 궁극적인 근거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55) 욥 1: 1, 8; 2: 3.

56) A. Weiser, *Das Buch Hiob*,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6), 212쪽.

57) J. L. Crenshaw, *Prophets, Sages, and Poets*, 43쪽.

58) 장 레베크, 「욥기」 93쪽.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욥 31: 15). 창조 신앙의 지평 가운데 이웃을 향한 측은지심으로 서로 돕고 나누는 가운데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 하나님 안에서 세계 가족의 대 윤리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욥의 윤리는 창 4장 9절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반문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제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니이다”라고 대답한다.⁵⁹⁾

3) 통합성

멀피는 지혜자들의 관심은 바른 행동의 처방보다는 현명한 삶의 품격에 있으며, 사람의 행위 규정보다는 성격 형성에 있다고 보았다.⁶⁰⁾ 욥 31장이 구약성서의 윤리를 기존 율법서의 상황적이고 제한적인 측면에서⁶¹⁾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 것은 결백 맹세문이 단순한 잠정적인 행동 규칙들의 준수 여부가 아닌, 보다 전인적인 인격 형성과 덕성 함양의 문제와 관계하기 때문이다.

통합성 논의에 있어서 욥 31장의 본문은 적절한 근거 본문들을 제공한다. 특별히 욥은 자신의 맹세문을 통해 계속해서 신체 기관들과의 통전적 소통 관계를 언급한다: “내 눈과의 약속”(욥 31: 1),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욥 31: 5),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욥 31: 7a),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욥 31: 7b),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욥 31: 9),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욥 31: 27), “내 입이 범죄하지 않게 하였노라”(욥 31: 30). 클라인즈는 인격 주체와 신체 기관이 단절되었을 때의 문제를 본문들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있다.⁶²⁾ 그러나 욥의 결백 맹세문은 그의 신체의 어떤 기관도 그의 주체적 정신과 도덕성의 통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관된 삶을 유지하는 성격 형성이 욥의 윤리인 것이다.

우리는 욥기 전체에서 흐르는 도덕성을 우주론과 연결시키고 있는 메리

59) J. L. Crenshaw, *Prophets, Sages, and Poets*, 45쪽.

60) R. E. Murphy, “Introduction to Wisdom Literature,” R. E. Brown/J. A. Fitzmyer/R. E. Murphy(eds.), *New Jerome Bible Commenta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0), 448쪽.

61) R. E. Clements,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22쪽.

62) D. J. A. Clines, *Job 21-37*, 1015쪽.

(Mary E. Mills)의 통찰을 통해 통합성의 창조 신학적 근거를 획득하게 된다. 메리는 욥기 문학 자체가 도덕적 비전 가운데 생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브라운의 견해를 인용하면서,⁶³⁾ 창조와 정의, 그리고 도덕성과 우주론의 주제는 분리될 수 없음을 단언한다. 왜냐하면 욥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과 무질서는 사실상 우주적 혼돈, 즉 악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⁶⁴⁾ 또 다른 측면인 안정과 질서의 차원에서 욥 31장에서 묘사되는 욥의 전인적 도덕성의 선포는 더욱 큰 우주론적 질서의 영역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욥이 줄곧 기대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우주의 정의를 조화롭게, 통전적으로 지탱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 경건성

윌드마 잔젠은 욥 31장의 윤리적 순진성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의 동기로 가능했음을 역설한다.⁶⁵⁾ 실제로, 처녀를 향한 호색의 눈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다(욥 31: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과 “내 걸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욥 31: 4). 내가 기만적 삶을 살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기 때문이다(욥 31: 6).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 일어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욥 31: 14). 고아나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재앙과 위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욥 31: 23). 또한 천체를 숭배하지 않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욥 31: 28).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 사상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 지혜 사상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제껏 살펴보았던 욥 31장의 내면성과 관계성, 그리고 통합성의 윤리적 특성들은 기존의 현자들의 가르침을 넘어선다. 이 점에서 포우러는 욥 31장 내에 내적 갈등이 있음을 지적한다: “인과응보적 교리의 요소들이 한층 강화된 윤리적 이상들과 나란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⁶⁶⁾

63) W. Brown, *The Ethos of Cosmos*, (Grand Rapids: Eerdmans, 1999), 320쪽.

64) M. E. Mills, *Biblical Morality: Moral Perspectives in Old Testament Narratives*, (Burlington, Vermont: Ashgate, 2001), 221쪽.

65) W. Janzen,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28쪽.

66) G. Fohrer, “The Righteous Man in Job 31,” 19쪽.

하나님 경외 사상과 관련하여 욥의 의로운 행동의 근거가 단순한 인과응보 교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다 내면화되고 연동되어 통전성 있는 근거를 준 것이 바로 창조 신앙이다.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기(욥 31: 15),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창조주를 통한 우주적 큰 가족의 개념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루어진다(욥 31: 18). 피조 세계와의 관계성도 창조 신앙의 터전에 자리한다. 토지를 착취하게 되면 땅이 울부짖는다(욥 31: 38). 그 결과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무질서가 일어난다(욥 31: 40). 창조 세계의 질서에서 혼돈으로 떨어질 위험이 인간 도덕성의 조화로운 실천이나, 아니면 분열적 횡포이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신앙의 경건성은 인과응보적 교리에 근거한 하나님 경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리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나와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웃과의 연대와 공동체적 삶을 원하신다. 땅을 탐욕대로 착취하여 피조 세계가 무질서화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창조 신앙의 윤리적 경건성은 이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모두를 향하도록 한다.

6. 나가기

이상에서 우리는 욥기 31장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윤리를 살펴보았다. 욥 31장의 정경적 맥락으로서 욥 자신의 결백함을 최후로 주장하는 법정 소송의 현장에서 결백 맹세문을 통한 12가지의 윤리적 항목을 관찰할 수 있었다. 기존의 십계명의 명령들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욥 31장의 윤리적 세목들은 지혜 전통의 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확장되어 감을 발견하였다. 특히 본문의 장르적, 정경적, 신학적 문제들을 토론하는 과정 가운데, 보다 진전된 윤리적 논의들을 결백 맹세문인 서두와 마무리 부분, 즉 1절의 눈과의 언약문과 38-40a절의 토지의 착취와 심판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본문의 12항목들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구약성서의 윤리들을 종합하고 심화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욥 31장을 통하여 드러난 구약성서의 윤리적 특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내면성, 관계성, 통합성, 경건성.

기존의 구약성서의 윤리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욥 31장을 통해 새롭게 갱신된 윤리는 창조 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은 기존의 외적 율법과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본래의 정신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구약성서의 윤리를 욥기는 보다 진전된 내면화와 보편화 작업을 통하여 본래의 윤리성을 고양시켰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신앙 윤리적 덕목과 상통하는 요소들이 발견됨으로써 율법주의적인 오명으로부터 신약과 단절되어 있었던 구약성서의 윤리적 가르침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다.⁶⁷⁾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의도는 율법의 근본정신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욥 31장은 무엇이 율법의 근본정신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바로 순전한 내면적 동기의 발로인 사랑의 실천이었다.

7. 참고문헌

- 김 이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약이해,” 「구약논단」 24집 (2007년 6월), 33-51쪽.
 목회와신학 편집부, 「욥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이 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55-173쪽.
 안 근조, “욥기 38-41장의 신언설의 이해와 문학전승사적 위치,” 「구약논단」 20집 (2006년 4월), 147-166쪽.
 이 균호, 「욥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장 레베크, 「욥기」 (김 건태 옮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8).
 Barton, J., *Understanding Old Testament Ethics: Approaches and Exploratio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Birch, B. C., *Let Justice Roll Down: The Old Testament Ethics, and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1).
 Blenkinsopp, J., *Wisdom and Law in the Old Testament: The Ordering of Life in Israel and Early Juda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7) 한 발 더 나아가,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생겨난 종교이다. . . 왜냐하면 신약성서는 구약성서를 바탕으로 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숙,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연속과 단절: 기독교와 유대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하여,” 「구약논단」 31집 (2009년 3월), 170-171쪽.

- 2003).
- Brown, W., *The Ethos of Cosmos*, (Grand Rapids: Eerdmans, 1999).
- Clements, R. E., "Christian Ethics and the Old Testament," *Modern Churchman* 26-3 (1984), 13-26쪽.
- Clifford, R. C., *The Wisdom Litera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 Clines, D. J. A., *Job 21-37*,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 Crenshaw, J. L., *Prophets, Sages, and Poets*, (St. Louis, Missouri: Chalice Press, 2006).
- _____, *Old Testament Wisdom: An Introduc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Ellens, J. H., *Understanding Religious Experiences: What the Bible says about Spirituality*,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2008).
- Fohrer, G., "The Righteous Man in Job 31," J. L. Crenshaw/John T. Willis(ed.), *Essays in the Old Testament Ethics*,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Inc., 1974), 3-22쪽.
- _____, *Das Buch Hiob* (Kommentar zum Alten Testament 16),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3).
- Habel, N. C.,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85).
- Hartley, J.,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88).
- Janzen, J. G., *Job*,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Janzen, W., *Old Testament Ethics: A Paradigmatic Approa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Mills, M. E., *Biblical Morality: Moral Perspectives in Old Testament Narratives*, (Burlington, Vermont: Ashgate, 2001).
- Murphy, R. E., "Introduction to Wisdom Literature," R. E. Brown/J. A. Fitzmyer/R. E. Murphy(eds.), *New Jerome Bible Commenta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0), 447-452쪽.
- Newsom, C. A.,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 Ogletree, Th. W., *The Use of the Bible in Christian Ethics*, (Philadelphia, Fortress, 1983).
- Pope, M. H., *Jo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2).
- Weiser, A., *Das Buch Hiob*,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6).

검색어

구약성서 윤리

욥기 31장

맹세문

지혜정신

정경적 읽기

투고일: 2010년 3월 15일

심사일: 2010년 5월 1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3일

Old Testament Ethics in Job 31

Keun-Jo Ahn,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oseo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morality in Job 31. Job 31 has been regarded as a consummating point in the Old Testament ethics, which is compared to Jesus' teachings on the Mount. This study has proved why it is so and has found ethical principles that integrate both legal and sapiential morality.

First, genre problems of the text is literally discussed. Apart from the dominant literary form of oath which starts with **אם**(if), the first mention of Job in the text takes the form of covenant making. This clash of disparate genres is intentional in order to maximize Job's claim of self-innocence. Second, the problem of the disposition of the text is settled by canonical criticism. The last oath(31: 38-40a) is arranged separately from the main body of the innocent oaths. Canonical reading of the text renders the verses in question as a dramatic conclusion of Job's innocence by which we should recollect the curse of the ground(Gen. 3: 17-18) from the sin of covenant-breaking. Third, "Job's covenant with eyes" is theologically entertained. Ethical integrity of Job emerges from this inward act of

self-examination.

Through analyses of the text, we discover that Job 31 has a schematic structure concentrating on radical sense of morality. There are 16 oaths of innocence consisting of 12 ethical items. Each item includes legal morality such as reverence of God, resistance to lasciviousness, prohibition of stealing, ban on perjury. Yet, wisdom morality elaborates genuine spirit of legal regulations such as purity in heart, equality of human beings under Creator, vulnerability to inner immorality, relatedness to the land. The critical point of Job 31 is to discover original meanings of legal teachings by stressing inwardness and intention of moral being. As a result, we have four principles of the Old Testament Ethics in Job 31: principles of 1. inwardness, 2. relatedness, 3. integrity, and 4. piety.

The study of Job 31 in the perspective of biblical morality has excavated the spirit of the legal imperatives of the Old Testament and highlighted the genuine character of the Law. We have discovered that the sapiential touch of the ethical elements of the Law facilitates the bridge between the Old Testament morality and the Sermon of the Mount in the New Testament.

Keywords

Old Testament Ethics
Job 31
Oath of Innocence
Wisdom Morality
Canonical Reading